

# 여성의 생애주기별 의료 요구

## - 피임 및 낙태 관련 의료 요구를 중심으로

2013년 5월 3일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젠더와건강팀

\*2013년 비판과대안을 위한 건강정책학회 SIG: “한국의료  
서비스의 젠더 및 성소수자 감수성” 발표자료

#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요구

- 청소년기
  - 성교육 및 피임, 미혼모
  - 몸에 대한 바른 가치관 (다이어트, 음주, 흡연 노출)
  - 자살 등 정신보건학적 개입 필요군
- 직업, 사회활동 시기
  - 일/가정 양립 노동 가중 및 스트레스
  - 높은 비정규직 비율 – 낮은 건강검진율
  - 세계적으로 낮은 모유수유율, 높은 제왕절개율
- 완경기 이후
  - 갱년기증상
  - 만성질환 비율 증가, 낮은 운동실천율
  - 건강검진 소외계층

# 여성의 생애주기별 의료 요구

- 청소년기
  - 생리 관련 증상 및 질환
  - 피임
  - HPV 예방 백신
- 직업, 사회활동 시기
  - 피임, 불임시술, 산전진찰, 출산, 낙태
  - 여성암 예방 진단
- 완경기 이후
  - 완경기 증상

# 여성의 의료 요구 충족 평가 영역

- 자원, 수단, 서비스 등에 대한 평가
  - 가용성(Affordability)
  - 접근성(Accessibility)
  - 질(Quality)
  - 수용성(Acceptability) 등
- 서비스 전달 과정 및 의사-환자 관계에 대한 평가
  - 개인의 프라이버시 존중
  - 비밀 보장
  - 환자의 알 권리 보장
  -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 등

# 오늘 검토할 주제

-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 요구 중 의료 요구에 초점
  - 노동, 교육,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대한 논의는 생략
- 여성의 생애주기별 의료 요구 중 피임, 낙태에 초점
  - 불임시술, 출산 관련 의료, 여성 암 예방 진료 등에 대한 논의는 생략
- 여성의 의료 요구 중 재화 및 서비스의 가용성, 접근성 등 제도적 측면에 초점
  - 서비스 전달 과정 및 의사 환자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생략

피임

# 피임의 공중보건학적 중요성

- 가장 중요한 여성 건강 정책 중 하나
  - 모성 사망 감소
    - 매년 전세계적으로 30만 명의 여성이 적절한 피임 방법에 접근하지 못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
  -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인한 비용 감소
  - 여성의 사회 참여, 노동 가능성 증대
  - 낙태 감소

# 피임 방법별 피임 효율성

피임 방법	피임 효율성 (%)
자연 피임법	
날짜 피임법	70 ~ 80
중상-체온법	85 ~ 98
질외 사정법	82 ~ 96
차단 피임법	
살정제(질 좌약)	80 ~ 85
남성용 콘돔	85 ~ 88
(살정제와 병행시)	90 ~ 95
여성용 콘돔	75 ~ 80
(살정제와 병행시)	85 ~ 90
호르몬 피임법	
경구 피임약	94 ~ 97
피하이식 호르몬제	96 ~ 99
주사용 호르몬 피임제	98 ~ 99
자궁내 장치	
구리 제품	97 ~ 98
Levonorgestrel 함유 제품	98 ~ 99
영구 불임술	
난관 결찰술	99.9
정관 절제술	99.9



# 피임 수단에 대한 경제적 접근성

- 한국에서는 모든 피임 수단에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음
- 현재는 건강보험과 별도로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없음
- 미국은 2012년 오바마 법안에서 민간보험도 모든 피임수단에 보험 적용하도록 강제

# 그래도 남는 원하지 않는 임신의 문제

- 피임방법의 자연 실패율
- 불확실한 사용
- 준비되지 않은 섹스 / 강간
- 파트너가 피임기구 사용 거부
- 상황에 따라 임신을 안 원하게 됨
- 10년간 69/1000 → 55/1000
  - 피임실천율 54% → 63%

# 응급피임법

- 호르몬 응급피임법
  - 에스트로젠-프로제스틴 복합요법(Yuzpe method)
    - 일반적인 피임약(에스트로젠-프로제스틴 복합제)를 성교 후 72시간 이내 4알을 먹고 12시간 후에 다시 한번 더 먹는 방법
    - 과량의 에스트로젠 복용에 따른 오심, 구토, 높은 피임 실패율 (3.2%)
  - 프로제스틴 단독요법 (Levonorgestrel)
    - 노레보원(현대), 포스티노1(쉐링)
    - 레보노르게스트렐(Levonorgestrel) 1.5 mg 성교 후 72시간 내 1회 복용
    - 24시간 이내 복용 시 피임성공율은 90-95%, 48시간 이내 85-90%, 72시간 이내 80-85%
- 구리 포함 자궁내장치
  - 성교 후 5일 이내에 구리를 포함하는 자궁내장치 삽입
  - 실패율은 1%
  - 산부인과에서 전문의에 의해 시행, 5년까지 거치가능

# 응급피임약과 관련된 잘못된 통념

- 피임 노력을 덜할것? 남성이 콘돔을 덜 쓰려 할 것?
  - 사후피임약을 상비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정기적인 피임수단들(콘돔이나 피임약) 복용/사용 빈도 영향없음
- 응급피임약을 습관적으로?
  - 95007명 cohort에서 4%만이 1년에 1회 이상 사용
  - 미리 처방받을 수 있는 나라들과, 사후에 처방받아 살 수 있는 나라들에서 의도하지 않은 임신 감소율이 차이남
- 성매개질환 증가?
  - No
- 응급피임약이 건강을 해친다?
  - 의도하지 않은 임신의 health risk가 더 큼

# 우리나라의 응급피임약

- 2001년 노래보정 수입
  - → 노래보의 특허가 만료된 후 현재는 5-6종의 사후피임약이 상용화, 전문의약품
  - 연도별 매출액은 2002년 13억원에서 2006년 34억원, 2008년 41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
- 대한산부인과의사회, 2009년 1월 설문조사
  - 가임기 여성 10명 중 3명은 응급피임약 사용경험이 있음
  - 주 이용 계층 : 20대 미혼여성 (20대가 66.7%, 미혼여성이 83%)

# 외국 현황

- 비처방 의약품/일반의약품 (OTC)
  - 위험성보다 이점이 크고, 남용 및 악용될 위험성이 적으며, 정확한 라벨이 되어있어 소비자가 전문 의료인의 도움 없이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자가 처방에 사용할 수 있는 약품들로 분류
- 사후 피임약 상용화된 38개국 중 OTC 24개국
  - 처방 필요하거나 병원에서 : 헝가리, 이탈리아, 아일랜드, 루마니아, 칠레, 한국
  - 아르헨티나 공공병원에서 무료로 줌
  - 미국 : 만 17세 이상의 여성은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으로 구매, 만 17세 미만의 여성은 병원에서 의사와의 상담 후에 처방전 발급
  - 캐나다 : 2005년 4월 약국에서 약사와의 간단한 상담 이후 구입  
→ 2008년 5월부터는 약사와의 상담도 필요없이 가능
  - 칠레 : 강간 같은 위급상황시 보호자 동반, 보건소에서 사후피임약 무료공급 → 2006.9부터 부모동의 없이도 사후피임약 무료공급(여성 대통령 미첼 바첼렛 추진)



## POLICY STATEMENT

# Emergency Contraception

## abstract

FREE

Despite significant declines over the past 2 decades, the United States continues to have teen birth rates that are significantly higher than other industrialized nations. Use of emergency contraception can reduce the risk of pregnancy if used up to 120 hours after unprotected intercourse or contraceptive failure and is most effective if used in the first 24 hours. Indications for the use of emergency contraception include sexual assault, unprotected intercourse, condom breakage or slippage, and missed or late doses of hormonal contraceptives, including the oral contraceptive pill, contraceptive patch, contraceptive ring (ie, improper placement or loss/expulsion), and injectable contraception. Adolescents younger than 17 years must obtain a prescription from a physician to access emergency contraception in most states. In all states, both males and females 17 years or older can obtain emergency contraception without a prescription. Adolescents are more likely to use emergency contraception if it has been prescribed in advance of need. The aim of this updated policy statement is to (1) educate pediatricians and other physicians on available emergency

### COMMITTEE ON ADOLESCENCE

#### KEY WORDS

emergency contraception, adolescents, teen pregnancy, birth control, oral contraceptives

#### ABBREVIATIONS

FDA—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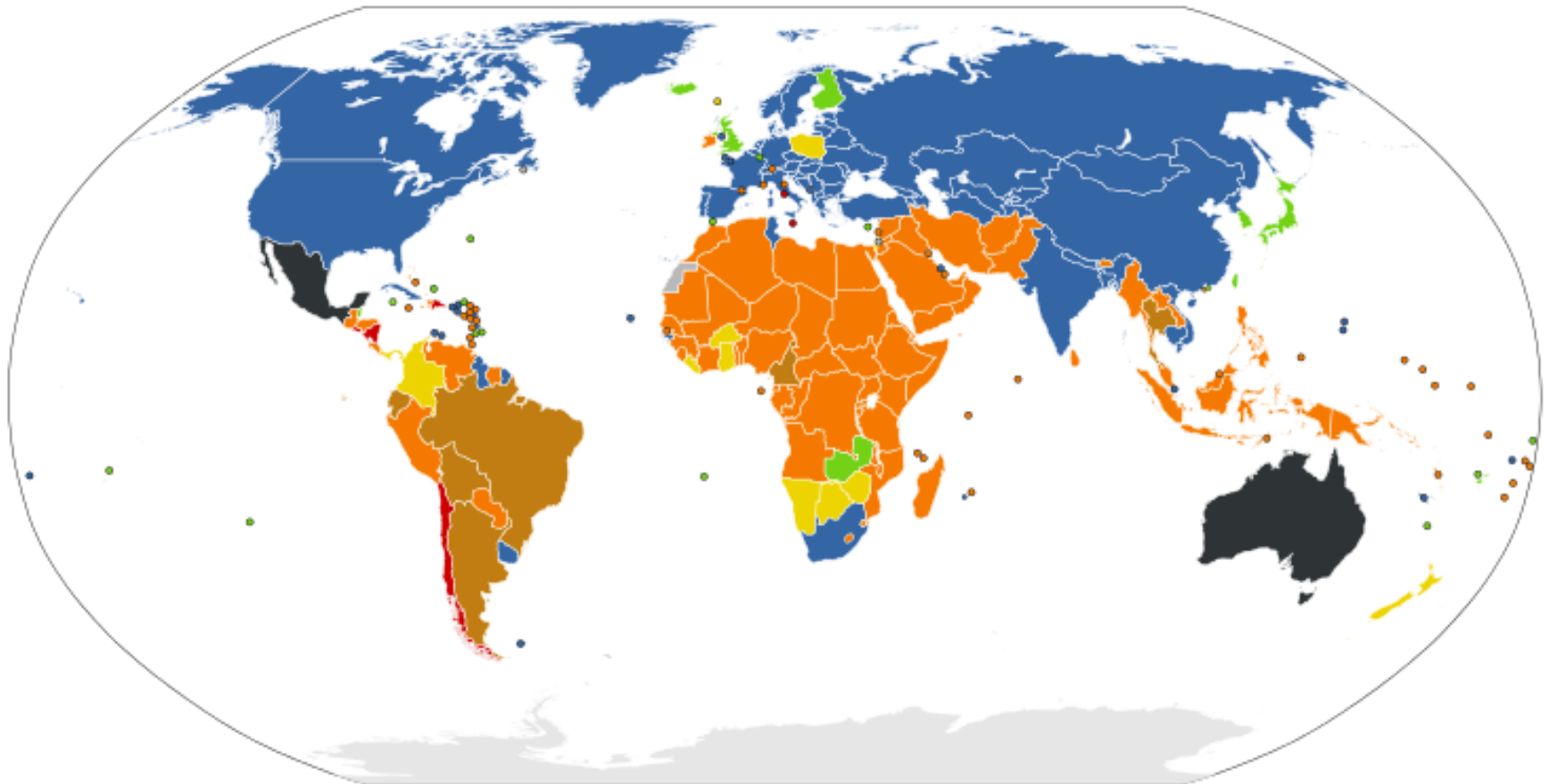
STI—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

This document is copyrighted and is property of the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and its Board of Directors. All authors have filed conflict of interest statements with the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Any conflicts have been resolved through a process approved by the Board of Directors. The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has neither solicited nor accepted any commercial involvement in the development of the content of this publication.

All policy statements from the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automatically expire 5 years after publication unless reaffirmed, revised, or retired at or before that time.

낙태





구분	모체생존, 신체건강	모체의 정신건강	강간, 근친상간	태아기형	사회경제적 미유	본인요청	낙태율	모성 사망률
미국	0	0	0	0	0	0	20.8	17
캐나다	0	0	0	0	0	0	15.2	6
오스트리아	0	0	0	0	0	0	1.3	4
벨기에	0	0	0	0	0	0	7.5	10
체코	0	0	0	0	0	0	12.2	9
덴마크	0	0	0	0	0	0	14.3	5
프랑스	0	0	0	0	0	0	16.9	17
독일	0	0	0	0	0	0	7.8	8
그리스	0	0	0	0	0	0	5	9
헝가리	0	0	0	0	0	0	23.4	16
이탈리아	0	0	0	0	0	0	10.6	5
네덜란드	0	0	0	0	0	0	10.4	16
스위스	0	0	0	0	0	0	7.3	7
핀란드	0	0	0	0	0	-	11.1	6
노르웨이	0	0	0	0	0	0	15.2	16
스웨덴	0	0	0	0	0	0	20.2	2
영국	0	0	-	0	0	-	17.0	13
슬로바키아	0	0	0	0	0	0	11.7	3
터키	0	0	0	0	0	0	..	70
아이슬란드	0	0	0	0	0	-	14.1	
룩셈부르크	0	0	0	0	0	-	..	28
호주	0	0	0	0	0	-	19.7	8
일본	0	0	0	-	0	-	12.3	10
스페인	0	0	0	0	-	-	8.3	4
포르투갈	0	0	0	0	0	0	0.2	5
폴란드	0	-	0	0	-	-	0	13
뉴질랜드	0	0	0	0	-	-	19.7	7
한국	0	-	0	-	-	-	..	20
멕시코	△	-	0	0	-	-	0.1	83
아일랜드	△	-	-	-	-	-	..	5

낙태 합법화  
≠  
낙태율 증가

# Unsafe abortion

- 한해 4160만건 낙태 중
  - 2200만이 안전하지 못한 낙태
  -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낙태의 95%, 아시아의 60%, 선진국의 8%
- 낙태 관련 합병증 : 800만명(치료 500만명)
- 낙태 관련 사망 : 67000명

# Unsafe abortion

- 법적 상태
- 법에 대한 해석
- 공적 기금의 수준
  - 미국, 1980 하이드 개정조항
- 시술 방식
  - 기관, 시술자 숙련도, 시술방법
- 여성의 건강상태, 임신 주수
- 사회경제정의
- 사회적 환경

Safe abor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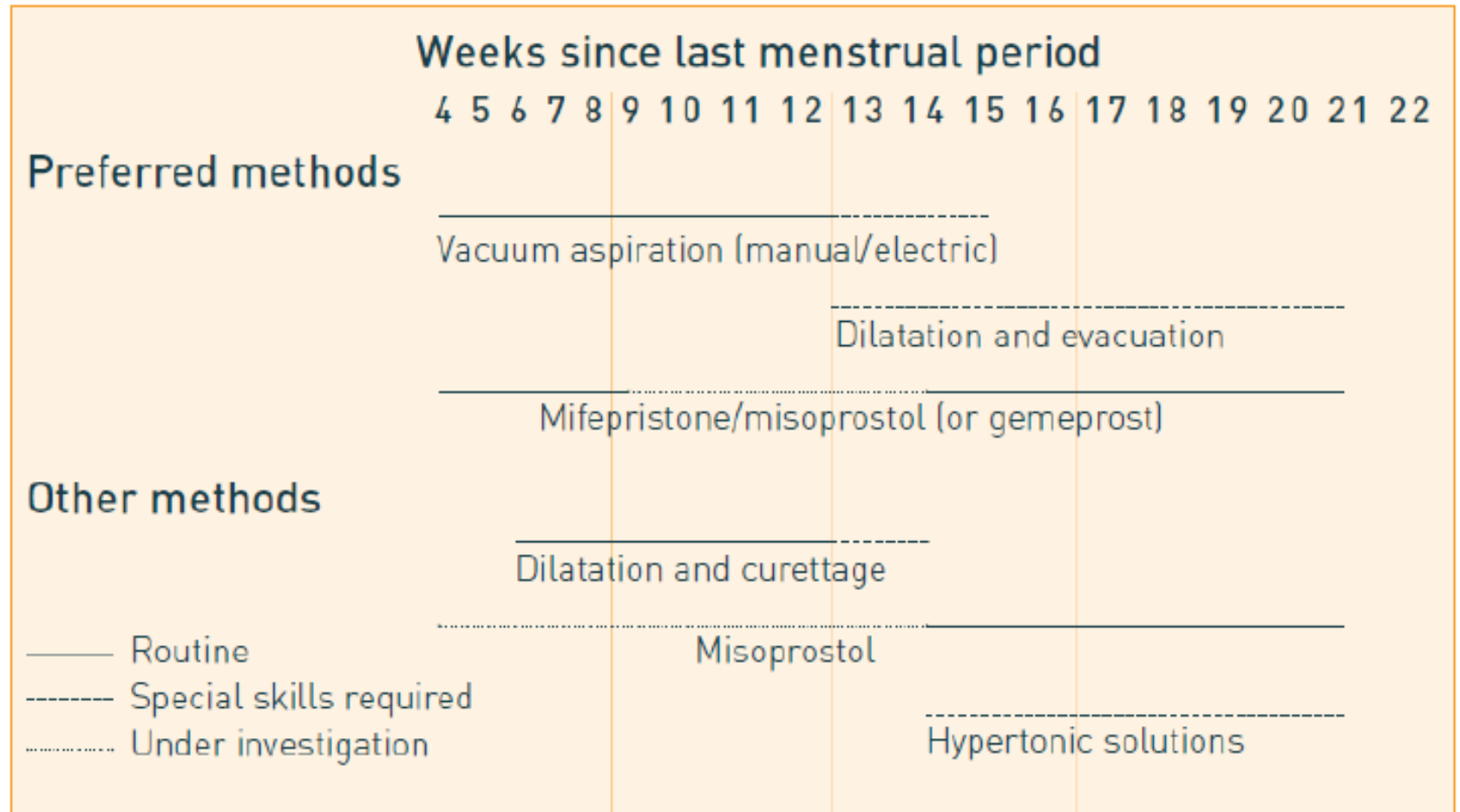
# 1. 합법화

표 Ⅲ-21. 시술여성의 임신주수

구분	전체 (%)
12주 미만	5516 (96.3)
12주 이상, 16주 미만	172 (3.0)
16주 이상, 20주 미만	25 (0.4)
20주 이상	16 (0.3)
무응답	201
계	5930

- 기간해결방식
  - 12주~14주
  - 24주~28주
- 적용사유해결방식
  - 사회경제적 사유
  - 본인의 요청

## 2. 안전한 시술방법



## 2. 안전한 시술방법



- Medical abortion
  - Mifepristone / Mifepristone + misoprostol
- RU-486(Mifepristone)
  - 1988년 9월, 6년간의 임상시험 끝에 프랑스에서 낙태용 약물로 승인
  - 1988년 10월, Roussel Uclaf의 이사진들이 시장철수를 결정하지만, 프랑스정부와 보건국에서 공중보건을 위하여 약물을 계속 생산해 줄 것을 요구
  - 보건부장관 Claude Évin
    - “나는 낙태 논쟁이 여성에게서 의학진보의 결과물을 빼앗아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 지금부터 mifepristone 은 단지 제약회사의 상품이 아니라 여성을 위한 도덕적인 상품 moral property of women 임을 프랑스정부가 보장할 것이다”
  - 1990년 2월부터 mifegyne이라는 상품명으로 병원에서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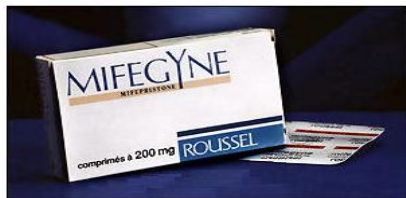
## 2. 안전한 시술방법

- 1991년 7월부터 영국에서, 1992년부터 스웨덴 → 현재 46개국에서 승인 후 판매
- 미국 2000년 9월 FDA승인
  - 엘 고어 vs 조지 부시 대통령 선거의 주요 이슈
  - 점점 비중 증가해 2008년 임신중절의 17%를 차지 (9주미만의 임신 중 25%)
- 중국 1988년 10월 세계최초로 허가
  - 자국에서도 아직 승인 받기 전이라 Roussel Uclaf사에서 공급을 거절하자 1992년 중국정부는 자체제약회사를 설립하고 복제약을 직접 생산하기 시작.
  - 2000년대 이후로 의사의 수가 많아짐에 따라 수술적 방법과 약가가 비슷해짐
  - 사후피임약 목적으로 유일하게 승인
- 유럽 아일랜드, 폴란드 제외 모두 도입
  - 핀란드 84%, 스코틀랜드 68%, 영국 40% (2009)
- 뉴질랜드
  - 1999년 프로초이스 의사들이 직접 Istar라는 비영리 수입회사 설립, MedSafe(뉴질랜드 식약청)에 수입판매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신청,
  - 2001년 8월 승인, 2001년 10월부터 사용
  - 2003년 4월 대법원에서 Right to life Vs Istar → 지속적인 판매 보장

# Abortion Pill Online

[Home](#)[FAQ](#)[Order](#)[Contact](#)

Buy abortion pill online:  
Medical Non-Surgical Abortion.  
Buy Mifepristone Mifegyne RU-486 without prescription



Mail Order - Worldwide Delivery

프랑스제 낙태약 ru486 판매합니다. [ru486b\(골뱅이\)yahoo.co.kr](mailto:ru486b(골뱅이)yahoo.co.kr) | 카페 앨범

ru486조회 40 | 추천 0 | 2010.10.08, 16:45

프랑스제 낙태약 ru486 판매합니다. [ru486b\(골뱅이\)yahoo.co.kr](mailto:ru486b(골뱅이)yahoo.co.kr)  
원치않는 임신이나 몇주가 지나 임신사실을 알아 고민이신분,  
프랑스제 낙태전문약 ru486 판매합니다.  
주위에 말 못하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문의 주십시오.  
[ru486b\(골뱅이\)yahoo.co.kr](mailto:ru486b(골뱅이)yahoo.co.kr)  
ru486 낙태약 판매 [ru486b@yahoo.co.kr](mailto:ru486b@yahoo.co.kr)

### 3. 공공의료 확충 (합법화가 전제?)

- 합법화되어있는 경우, 공공의료체계에서 제공
  - 영국, 2006년 시행된 낙태의 87%가 NHS 기금
  - 스페인, 정부지원 받는 사설 클리닉에서 시술됨
  - 스웨덴, 18주까지의 모든 낙태시술이 무료
  - 미국, 사설 클리닉
  - 중국, 농촌 지역에서는 공공의료기관에서 무료
  - 인도,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낙태만 합법적

- 비용

- 미국 1분기 413\$ (2004)
- NHS (덴마크, 독일, 루마니아, 영국) : 무료
- 핀란드 : NHS 무료, 입원료(85~145\$)
- 프랑스 : 246-354\$, 보험이 80% 커버, 저소득계층에서는 100%커버
- 인도 : 16-20\$
- 쿠바 : 무료
- 민간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다양 :
  - 알바니아 40\$, 독일 226-305\$, 오스트리아 388-1085\$(보험 적용안됨), 영국 881-979\$
- 불법인 경우 : 부르는대로.

### 3. 공공의료 확충

- 임신시 상담
- PAC(post-abortion care)
- 낙태 후 상담
  - 피임방법 교육, 성매개질환 치료